

청소년활동 토론회

“청소년 활동, 길을 찾아서”

- 2012 청소년활동 당면 10대 과제 -

[일시]

2011. 9. 28 (수) 15:00~18:00

[장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층 대회의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orea Youth Work Agency

『2012년 청소년활동 당면 10대 과제』와 관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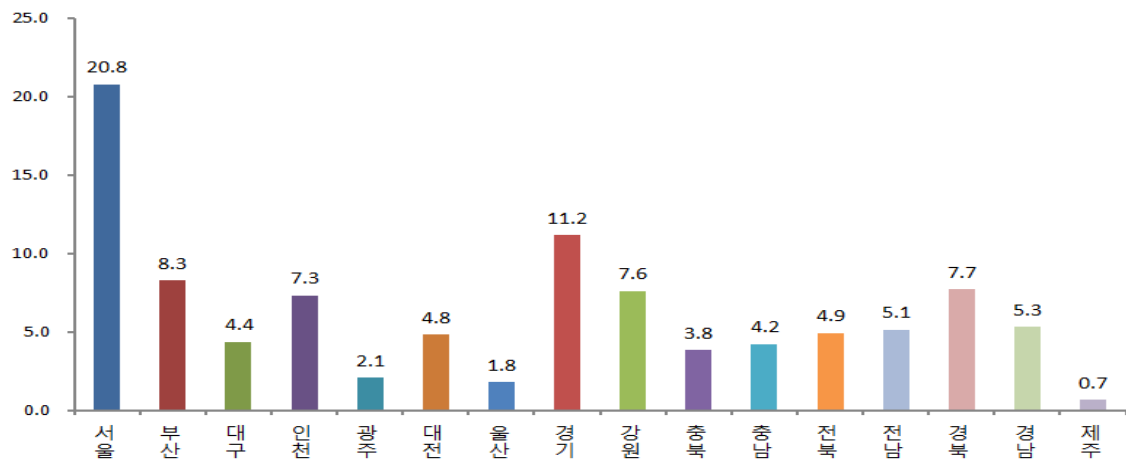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 활동 분야 관련

- 분야1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 중점과제 및 정책과제(총 29개 세부추진과제)
 -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확대
 - 체험활동을 통한 역량 개발 지원시스템 강화
 -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확대
 - 시민역량 증진 및 인성 교육 강화
 - 사회참여활동 강화
 - 청소년 언어순화 및 인성교육 강화
 - 글로벌 시민역량 증진
 -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지원
 -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지도 강화
 - 건전한 아르바이트 여건 조성
 - 청년층 취업 및 창업 지원
- 시사점
 - 활동분야 정책사업의 다양성(망라성)
 - 정책사업으로서의 이슈성은 연도별 추진사업에 반영 필요
(금년도 시도별 청소년정책사업은 기본사업 범위내에서 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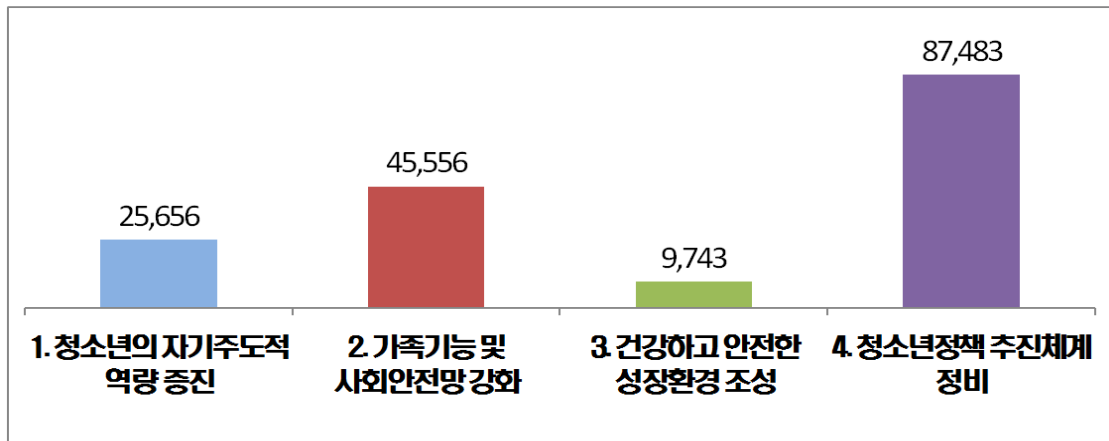
□ 2011년도 시도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16개 시도의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 예산
 - 16개 시도 청소년정책 총예산(지방비 등 자체예산) : 1,684억원
 - 16개 시도 청소년정책 평균예산(지방비 등 자체예산) : 105억원
 - 사업수
 - 16개 시도 청소년정책 총사업수 : 643개
 - 16개 시도 청소년정책 평균사업수 : 40개
- 지자체가 중앙행정기관과 별도로 시행하는 '11년 청소년정책 자체사업의 총투자규모는 약 1,684억원
 - 청소년정책 자체사업의 예산규모는 서울(350억원)이 전체 지자체 예산의 20.8%로 가장 크고 경기(188억원, 11.2%), 부산(139억원, 8.3%), 경북(130억원, 7.7%) 순



〈'11년 전체 지자체 청소년정책 예산 대비 시도별 비중 현황 (%)〉

- 정책영역별로는 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875억원(51.9%) ②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 456억원(27.0%) ③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역량증진 257억원(15.2%)



〈2011년 청소년정책 영역별 지자체 예산 현황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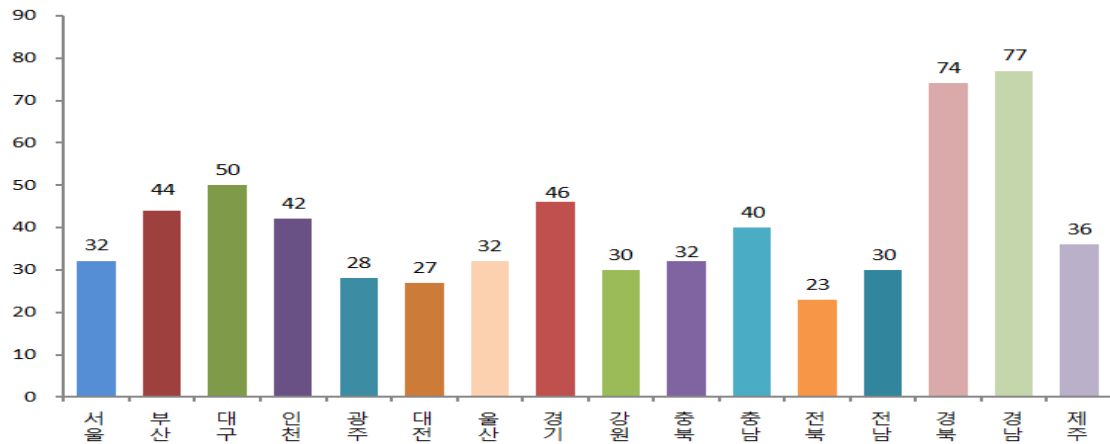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분야는 부산의 예산(83억원)이 이 분야의 전체 지자체 예산의 32.3%로 가장 크고 경기(65억원, 25.5%), 서울(23억원, 8.9%) 순
-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는 경기의 예산(83억원)이 이 분야의 전체 지자체 예산의 18.1%로 가장 크고 서울(60억원, 13.1%), 경북(51억원, 11.1%) 순
-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분야는 서울의 예산(34억원)이 이 분야의 전체 지자체 예산의 34.6%로 가장 크고 전북(16억원, 16.4%), 경북(10억원, 10.3%) 순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분야는 서울의 예산(233억원)이 이 분야의 전체 지자체 예산의 26.7%로 가장 크고 강원(98억원, 11.2%), 인천(79억원, 9.1%) 순

〈2011년 정책영역에 따른 지자체별 청소년정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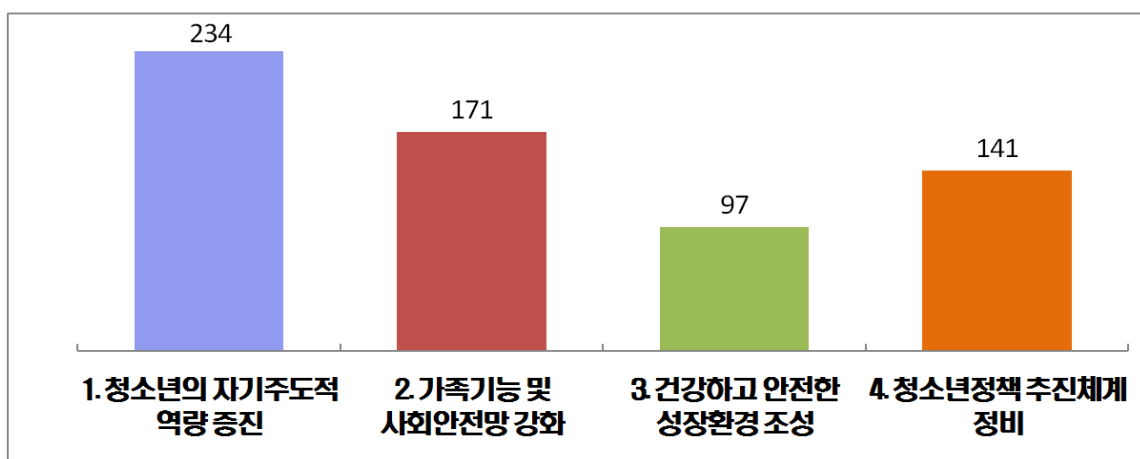
지자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계
서울	2,288	5,982	3,375	23,331	34,975
부산	8,282	3,051	342	2,262	13,937
대구	304	1,753	235	5,063	7,356
인천	993	2,920	505	7,920	12,338
광주	856	1,071	150	1,421	3,497
대전	576	1,628	175	5,742	8,121
울산	399	912	143	1,575	3,029
경기	6,540	8,252	427	3,568	18,786
강원	505	2,288	232	9,780	12,805
충북	708	1,320	126	4,309	6,463
충남	470	3,823	77	2,747	7,116
전북	684	1,968	1,598	4,042	8,291
전남	1,145	2,244	229	5,047	8,664
경북	948	5,075	1,005	5,948	12,975
경남	929	2,817	607	4,602	8,955
제주	30	455	520	128	1,132
합계	25,656	45,556	9,743	87,483	168,439

- '11년 16개 시·도의 청소년정책 사업 수는 총 643개
- 경남이 7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북 74개, 대구 50개, 경기 46개 순



〈'11년 지자체별 청소년정책 사업 수 (개)〉

- 정책영역별로는 ①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분야 과제가 234개로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②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171개(26.6%), ③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분야 141개(21.9%)



〈정책영역별 지자체 청소년정책 사업수 (개)〉

〈2011년 정책영역에 따른 지자체별 청소년정책 사업 수 현황〉

지자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계
서울	11	10	3	8	32
부산	16	13	8	7	44
대구	13	10	8	19	50
인천	15	10	6	11	42
광주	12	8	4	4	28
대전	9	9	4	5	27
울산	13	8	5	6	32
경기	20	8	7	11	46
강원	11	6	4	9	30
충북	14	7	4	7	32
충남	14	15	5	6	40
전북	6	8	5	4	23
전남	13	5	4	8	30
경북	29	21	12	12	74
경남	27	22	10	18	77
제주	11	11	8	6	36
합계	234	171	97	141	643

○ 시도 여건

- 시도간 재정여건으로 지역격차 크고
- 국고 의존률 매우 높음
- 추진사업은 기본계획에 나온 국고 지원사업이 대부분 차지
- 지역별 특성화 사업 추진 미진(관련 예산 및 추진과제)

□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청와대 보고자료' 고찰

- 제목 :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 3대 추진전략
 - 현장지원 중심의 파트너십 강화
 - 고객중심의 폭넓은 소통 확대
 - 데이터 중심의 정책 수립·평가
- 6대 중점과제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 교육-일 연계 선진 직업교육 체제 구축
 -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육성
 - 전략적 국가 R&D 체제 구축
 - 교육과학기술 글로벌화
- 관련중점과제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 학습의 즐거움을 살리는 수업 확산
 - 창의적 교실수업 구현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 수업 변화를 지원하는 내신평가 및 진로·진학교육 강화
 - 맞춤형 교과연구 및 연수지원으로 교원의 수업역량 향상
 -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강화
 - 학교 자율역량을 강화하여 수업의 변화를 성과로 연결
 - 좋은 수업을 실천하는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 바른 인성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우선 배려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강화

- 돌봄과 배움이 어우러진 유·초등교육 시스템 구축
- 폭력·안전사고 걱정 없는 학교

○ 청소년분야에의 참조 키워드

- ▷ 교육기부 운동 확산
- ▷ 지역 특성화 강화
- ▷ 교과별 학습에서도 체험활동 강화
- ▷ 진로교육 강화(직업체험 강조)
- ▷ 우선 배려학생 대상에 탈북학생 포함
- ▷ 학부모의 교육참여 제고
- ▷ 지역 기업과의 연계체제 형성
- ▷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다양한 역량 평가
- ▷ 글로벌 역량 강화

□ 2012년 청소년활동 10대 과제

1. 체험활동 기부운동

- 필요성
 - 일반 국민들에게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자발성을 환기하기 위한 국민운동 차원의 활동 필요
- 주요내용
 - 지역 사회 학교에 대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기부운동
 - 지역 청소년시설 및 관련 인프라 지역사회에 기부운동

2. 기업 청소년분야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 필요성
 -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로 규모 있는 청소년활동사업 저변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추진중인 사회공헌사업중 청소년사업 협력체제 구축
 - 사회공헌 기업과의 공동 활동프로그램 추진

3. 지역별 특성화 활동프로그램

- 필요성
 - 2011년도 시도 청소년정책시행계획 평가결과(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16개 시도 공히 지역특화사업이 미진하고 시도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정책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음
- 주요내용
 - 중앙의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역특성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별(16개 시도별) 특성화에 대한 기획 및 컨설팅 추진
 -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

4. 진로지도 전환학년제 활용

- 필요성

- 청년취업난에 따른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의 진로지도 강화 추세

- 주요내용

- 시도교육청, 고용노동청과의 진로프로그램 공동 기획·추진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환주간제(transition week)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범실시중

5. 남북 청소년 교류, 사회통합 프로그램

- 필요성

- 2012년 3월 서울에서 핵안보 정상회담(47개국) 예정되어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될 예정임

- 주요내용

- 남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 국내와 재일동포 청소년간 교류 프로그램
- 통일의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6. 지역내 시설간 통합프로그램 기획·추진

- 필요성

- 청소년 분야의 경우 지역내 단일 시설의 예산과 사업운영에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시설간 통합프로그램 운영 검토 필요

- 주요내용

- 지역내 청소년시설간 연계·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내 사회복지, 평생교육 등 청소년 이외분야의 시설과 연계·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입학사정관제 연계

- 필요성

- 교과부에서는 공교육의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고자 대입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대입전형에 반영되도록 입학사정관제도와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필요(교과부와 의 정책협의 혹은 MOU체결 등)

8.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활동 강화

- 필요성

- 정부 차원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므로 청소년활동에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주요내용

- 특히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교과부(학부보지원과)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임
- ※ 현재 학부모모니터링, 학부모 상담주간, 학부모 교육 정도만 추진되고 있음
- 교과부,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활동 사업 추진
- ※ 민간기업내 직원 자원봉사 활동은 가족동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기업 사회공헌조직과의 연계도 검토 필요)

9.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 필요성

- 현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국내 청년의 해외 인턴제 시책 등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 분야는 다소 소극적으로 보임

- 주요내용

- 국가간 청소년 교류, 세계시민의식 프로그램,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추진

10. 청소년지도자대회

- 필요성

- 국내 청소년지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정보교환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전국 행사 기획
- ※ 전국 도서관 사서들의 '전국도서관대회' 등 국내 특정직종의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해 전국대회를 여는 경우가 많음

- 주요내용

- 국내 청소년지도 우수사례, 지역별 특성화 사례 등 발표
- 추후 국제청소년지도자대회로 격상 추진